

국내경기는 4개월 만에 호전

~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렸으나 무더위 및 인바운드 소비가 상승시켜 ~

(조사대상 2만 7,191사, 유효회답 1만 1,282사, 회답율 41.5%,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4년 7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43.8로 4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무더위 효과 및 인바운드 소비 등이 견인하여 플러스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향후의 경기는 호조인 기업업적이 플러스가 되는 한편 에너지 가격의 급등 등 불확실한 요인도 많아 보합으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업계별로는 『서비스』 및 『건설』 등 10개 업계 중 7개 업계에서 개선, 악화는 2개 업계였다. 더위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에어컨 특수 및 알코올 소비 등 계절수요가 상승 요인이 되었다. 지역별로는 10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개선, 3개 지역이 악화되었다. 호조인 인바운드 소비가 계속된 한편 건설 수요의 고조는 지역경제의 상승 요인이 되었다. 규모별로는 4개월 만에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이 모두 개선되었다.
- 무더위로 인하여 일부 업계에서 특수가 발생하였다. 에어컨 및 음료 판매, 택시 이용 등이 호조라고 하는 목소리가 다수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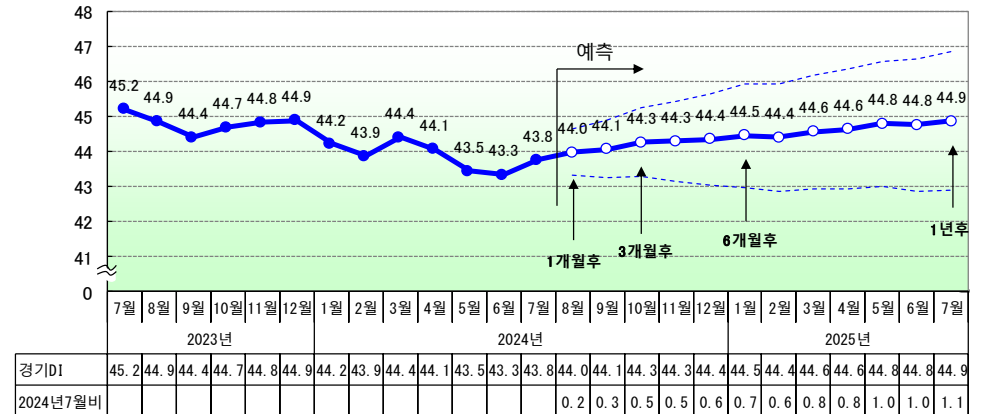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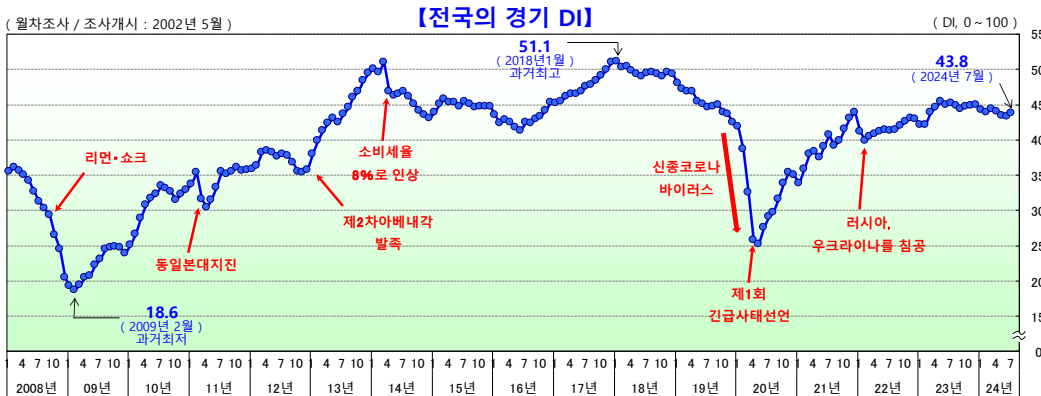
< 2024년 7월의 동향 : 4개월 만에 개선 >

2024년 7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43.8로 4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무더위 효과 및 인바운드 소비 등이 견인하여 플러스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7월은 외국 환율이 1달러=161엔대에서 149엔대까지 변동된 한편, 주가도 5,000엔 가까이 오르내리는 등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무더위로 인한 에어컨 특수 및 알코올소비의 증가 등 계절수요가 급확대된 한편, 호조인 인바운드 소비도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자동차 생산의 복구 및 왕성한 DX 수요, 도시 재개발사업 등도 호재였다. 한편 소비자의 절약정신 고조로 인한 개인소비 억제 외에도 사업단가 상승으로 인한 코스트 부담 증가, 인력부족 등은 마이너스 요인이었다.

< 향후의 전망 : 보합으로 추이 >

향후는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이나 정책금리의 추가 금리인상과 그에 따른 시장금리의 상승, 설비투자로의 움직임 등이 주목된다. 인바운드 소비 외에 자동차의 생산확대, 생성 AI 발전의 영향을 받은 글로벌한 반도체 수요의 증가, 여기에 인력부족에 대한 로봇 도입 등은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한편 에너지 가격 급등 및 물류 코스트의 증가, 가계 절약정신, 신종코로나 재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마이너스 요인이다. 향후의 경기는 대체로 회복경향으로 보이는 기업 업적이 플러스가 되는 한편 불확실한 요인도 많아 보합으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